

# 100개의 달로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

서은선 '케세라세라'展...26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거대풍선 미디어 작품·입체 조형 등 150여점 선포 전시 기간 관람객 소원 엮서 만들기 체험 진행 눈길

예로부터 한가위에는 송편을 빚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사람마다 고인의 무게와 종류는 각자 다양하겠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으고 바라던 소원 속 진심만은 다름 없을 것이다. 추석보다 일찍 둥근 보름달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손을 뻗으면 달을 듯한 거리에서 달맞이 소원을 빌 수 있는 자리다.



서은선작 'moon'



서은선작 'Que sera, sera Moon'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제공)

가 의 전기 작품에서는 환하게 웃는 호랑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표현 방식이 억지웃음을 짓고 행복하기를 강요한 것이 아닌 지 의문을 갖게 되고 이번 전시의 주제에 더욱 집중한다. 이후 작품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기억을 흘려보내는 의미의 달이 등장한다.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점차 단단하게 굳어가는 석고병대의 성질을 이용해 만든 수많은 달은 아픔을 흘려보내고 단단해진 내면을 표현한다. 간절한 소망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의 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환기하며 해결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시 기간 중 소원 엮서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소원 카드에 자신의 소원이나 이제는 훌러덩 버렸으면 하는 아픔을 적고, 물감을 흐르게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작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함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100개의 달과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자신을 아픈 시간에 가둔 사람들을 위한 애도이자 그 아픈 시간에 추를 달고 훌러덩길 기도하는 열원의 작업이다. 그동안 잘 버텨준 당신에게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오는 26일까지 서은선 작가의 개인전 '케세라세라'를 개최한다. 전시 제목인 '케세라세라'는 '세상만사 훌러덩이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를 지닌다. 작가는 이 문구에서 낙관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 그 방향성을 작품 속에 투영해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8점을 비롯해 2m 크기의 거대풍선을 스크린으로 하는 미디어 작품, 입체 조형 15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메인존에 있는 커다란 풍선은

슬픔의 눈물 덩어리 또는 보이지만 질 수 없는 간절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풍선을 감싸고 있는 봉대는 아픔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아프고 아파 이제는 굳어버린 마음을 의미한다. 한쪽에 전시돼 있는 상임불의 진동은 공기 중으로 전파되면서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자극을 준다. 인간의 심장 박동과 맥을 뛰게 하는 진동 주파수에 맞춰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한국화풍의 구상작이 중심이었던 작



'드라이브'

## 삶은 여행이다

### 시실의 캔버스상생



함부로 대해선 아니 되었다. 귀히 여기고 소중히 해야 했다. 그러지 않아서 자연은 지금 잔뜩 화가 났다. 며칠간 내리 장대비가 퍼부었다. 하늘 아래 땅에선 난리가 났다. 때론 선물 같은 날씨를 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준다. 올해는 유독 그 강도가 세다. 그 원초적인 이유에 대해 마스크는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나긴 한가 보다.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잘못된 탓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책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작은 실천이 답이다.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간간이 공평했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다. 자연에 순응하며 감사함으로 지냈던 농경시절이 정말 그리웠다.

그 때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게다. 사람 내음이 났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최소한 자연과 인간을 존중했던 가치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현재를 사는 우리가 지난 시대에 대한 경의인지로 모르겠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사방에 녹음이 우거져 있다. 아름다운 풍경이다. 금방 오색으로 변할 가을의 문턱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더 떠나고 싶다. 조만간 가버릴, 아쉬운 청록색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어딘가로 말이다. 감히 자연에 폭 파묻혀 며칠간이라도 여행하고 싶다. 가을가을 사라진 내 기억의 저편에서 손짓하고 있는 그와 함께. <경기도양평에서 화가시실>

## “그림책 읽으며 환경 소중함 느껴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이 환경을 주제로 마련한 그림책 원화 전시가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4월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도서관에서 펼쳐지는 어린이책 놀이터 너나들이 '지금, 지구에서' 기획전이 인기몰이 중이다. 이번 전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오세나 작가의 그림책 원화를 비롯해 집필 과정이 담긴 스케치와 조형물, 도서와 연계된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기획전시다. 오 작가는 볼로냐 국제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림책 '빙산',

ACC재단 어린이도서관 기획전 '지금, 지구에서' 성황



어린이도서관 기획전 '지금, 지구에서' 전시 전경 (ACC재단 제공)

'검정토끼', '테트릭스'는 작가가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소소한 사물에서 출발해 비유와 역할, 이미지를 통해 '지금, 지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 원화 작품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 그리고 인간의 편익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현재의 지구가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되돌아보도록 한다.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환경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 아울러 원화 감상 후 이어지는 체험활동을 통해 지구를 위한 자신만의 일상 속 실천 다짐을 적거나 그려서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과 인간,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시 중인 그림책 '검정토끼'는 2022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됐으며, '테트릭스'는 올해 하반기 출간을 앞둔 작가의 신작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 광주예술인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

오는 24일부터 선착순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 예술인들의 일상회복 및 유지를 위한 희망 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 지원금은 시각예술 및 문학 분야 작품비 지원 형태로 현재 광주 거주 예술인 총 400명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1건만 신청 가능하며, 50만원을 지급한다. 장르구분 없이 광주 거주 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나 정규직 직업을 가진 예술인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광주 거주 예술인 증명서류 (현주소가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1부, 예술인활동증명서 1부) ▲지원신청서 (예술인 약력 기재) 1부 (공공문양

식첨부) ▲작품파일 (일상회복 및 유지를 염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담은 30자 이내의 문안 또는 이미지) ▲작가 프로필 사진이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 홈페이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게시판에 파일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비번호는 최대 450번까지만 부여된다. 접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조기에 공모가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에 한해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파일로 준비해 오는 31일 오전까지 창작지원팀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대광새마을금고회관**

더 멀리,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안근원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